

# 1318세대 출판시장에 변화바람

## 영상세대의 감각 맞춘 고전의 재간행 잇따라

‘주변인’.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일컫는 교과서 용어다. 이들은 출판영역에서도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다. 입시지옥과 컴퓨터 영상문화 등 안쪽으로 포위된 채 거의 출판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던 것. 하지만 이제 ‘1318세대’, ‘Y세대’ 등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창의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열린교육, 정부와 민간의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 대안학교의 부상 등이 변화의 진원지. 출판계도 1318세대를 끌어 안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대를 위한 책들은 몇가지로 나뉜다. 먼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당위만 넘겼던 두툼한 고전들이 청소년 교양서가의 주류를 이뤄왔다. 고전은 그 가치만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기에는 호소력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고전에 당의정을 입힌 해설서들이 붐을 일으켰다. 특히 눈술시험에 고전출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쩍 늘어난 양상이었다. ‘한권으로 읽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쉽게 풀어 쓴~’, ‘소설로 읽는~’ 등의 이름을 단 책들이 그것.

### 1318형으로 탈바꿈시킨 고전문학

최근 청소년세대를 향한 변화의 바람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용 잡지의 창간 열기. 올해에만 중·고등학교 생용 잡지와 신문이 잇달아 창간됐다. 중학생을 위한 월간지 《포브틴》, 청소년을 위한 주간 문학잡지 《문예교실》(가람기획), 고교생 신문 《트임》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고교생 월간잡지 《밥(BOP)》도 선보여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고생들만의 진정한 고민과 시각을 담아내겠다는 포부로 도전장을 내민 것.

출판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전작품을 ‘1318형’으로 탈바꿈시킨 것. 고전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소개하는 것. 시대변화에 따라 기존의 고전작품을 복간한 것 등이 그것이다. 입시나 학교수업을 위한 도구적 목적을 떠나 책 자체의 미학을 살리면서 청소년들의 감수성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고전작품을 청소년 감각으로 재구성한 책들이 눈에 띈다. 신생출판사인 다림(대

표 정우진)의 《한빛문고》, 맑은소리(대표 이석범)의 《다시 읽는 한국문학》, 《청소년에게 권하는 세계문학선》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 시리즈들은 문학작품의 품격을 더하는 원색삽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편집과 디자인, 150~200쪽 사이의 가벼운 부피, 문고판 형에서 벗어난 변형판형의 과감한 도입, 가격 저항선을 배려한 5천~6천원의 가격대 등으로 청소년 독자층을 유인한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순원의 《소나기》, 김유정의 《봄봄》 등 세권을 펴낸 《한빛문고》는 독자를 철저히 배려하는 기획과 편집이 돋보인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 문장구조를 재배열하거나 낱말풀이, 작품해설을 통해 텍스트의 눈높이는 낮췄지만 이미지의 눈높이는 오히려 높였다. 정우진 대표는 이 시리즈는 “유아 그림책과 성인 단행본의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라며 “생명력이 긴 책이므로 한 권한권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세계문학까지 추가해 올해 안으로 10권을 더 펴낼 예정이다.

맑은소리의 문학선도 영상세대의 감수성을 배려한 디자인과 편집으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다. 《다시 읽는 한국문학》은 황순원의 《소나기》, 김동인의 《배따라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7권을 펴냈고 올해 안으로 20권을 추가한다. 《청소년에게 권하는 세계문학선》도 고리키·괴테·스타인벡 등의 문학작품을 원색삽화로 재구성해 선보이고 있다. 이석범 대표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보약이듯이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좋은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한다. 《청소년을 위한 고호》, 《청소년을 위한 신화》 등 인문학으로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 미발표 세계고전도 꾸준히 소개

세계적인 대문호의 작품 중 국내에서 미발표된 작품을 발굴, 청소년에게 새로운 문학 체험을 주는 책들도 속간되고 있다. 느낌(대표 권오경)의 《새롭게 읽는 세계명작》 시리즈가 대표적. 현재 도스토예프스키의 단편 2권을 선보였다. 《악어》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과 물질주의의 포로가 된 무리들을 조롱하는 작품이고 《착한 영혼》은 한 전당포업자가 착한 영혼을 지닌 아내로부터 사랑의 의미를



최근 출판계가 청소년도서 시장에 눈을 돌린 데 대해 잠재시장의 개척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포장만 바꾼 상업성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깨우쳐가는 내용이다. 톨스토이의 《세르기우스 신부》·《주인과 하인》 등을 준비중이고 올해 안에 2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밖에 톨스토이의 《인연》(오늘의책)·《해가 지기 전에 네 마음을 열거라》(청동거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혼통의 편지로 된 소설》(백성)·《너였던 나와 이별》(떡갈나무)·《희망》(시학사), 오스카 와일드의 《현신적인 친구》(누림)·《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예문), 헤르만 헤세의 《사랑이 가기 전에》(문지사) 등이 소개됐다.

한편 이미 널리 알려진 세계명작을 복간하거나 새롭게 번역해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많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비룡소),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창작과비평사), 찰스 램의 《세익스피어 이야기》(현대지성사) 등은 청소년용으로 다시 번역됐고, 문예출판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등을 문고판에서 신국판형으로 바꿔 복간했다.

청소년 도서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잠재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결국 포장만 바뀌어 같은 내용을 몇번씩 울궈먹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한편 청소년 문학도서가 교육적인 측면이 무시될 수 없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청

소년 시장, 특히 영상세대의 감각에 맞춘 새로운 시리즈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문학출판은 안정된 시장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10대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분석한다. 한 소장은 “앞으로 2~3년 안에 전자책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종이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장층의 문학적 감수성에 호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학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 10대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

교육현장에 있는 일선교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너무 상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송문고의 허병두 교사는 “지금까지 출판계는 청소년 도서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우수도서 개발과 투자에 게을렀다. 그 결과 번역서만 범람하고 주체적 문화수용의 태도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최소한 3~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장기적 안목으로 10대를 위한 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한다.

미래의 독서인구인 청소년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감성과 이상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청소년이 읽을 책을 만드는 출판인들은 더욱 섬세한 배려와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산업적 측면이 융합된 좋은 읽을거리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천홍 기자